

# 탄소 배출 저감 효과 탁월…광주산 기아 스포티지 HEV 뜬다

한국 탄소 배출 감소에도 수송부문은 늘어…SUV 차량 판매 증가 영향  
한국자동차연구원 “하이브리드·친환경 트럭 등 보급 확대 검토 필요”

한국의 전체 탄소 배출량은 줄었지만 등 수송부문만 큼은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중량 차량 판매가 늘면서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이 수송부문 탄소 감축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수송부문 배출량은 3.7%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16.6%를 차지했으며 전력부문(4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도로 교통이 수송부문 배출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 탄소 배출은 개인 소유 차량 중심이라 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개인 소유 차량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신차 친환경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긴 수명 주기로 인해 단기간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근 SUV 판매 증가세까지 겹쳐 배출량 감소에 제약이 커지고 있다. SUV는 일반 중형승용차보다 차체 중량이 200~300kg 가량 무거워 탄

소 배출량이 20%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송부문 탄소 배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실적인 전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 대비 연비와 배출량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아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흐름을 상정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스포티지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연료 효율과 배출 저감을 동시에 노린 차종이다.

국토교통부의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국

202만 4481대로, 전년(154만 2132대)보다 31%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추세와 수송부문 탄소 저감 대책이 다각화된다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나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들어 하이브리드 전략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 대중화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차량 연비 역시 2000년대 초반 대비 80% 이상 개선됐다. 일본 내 전기차 보급률은 낮지만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수송부문 배출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노후 차량의 친환경화 전환 등의 대책으로 수송부문 탄소 저감을 이끌어냈다. 친환경 트럭

산업도 함께 육성해 탄소 감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단일 해법이 아닌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을 단기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교통 시스템 개선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같은 모델은 국내 탄소 감축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차는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대비 3.5배 많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효과적인(탄소) 단기 감축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중국 사례와 같이 하이브리드 차와 친환경 트럭 등의 보급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TS,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전국 14개 본부에 전문인력 배치  
통학버스 4만대 불법개조 등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영유아의 등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주어진다.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S는 2018년부터 자동차 안전단속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 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4만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했다.

특히, 하치확인장치 미작동, 승차장지 임의개조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안전신문고 신고와 연계해 신속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TS는 또 자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담당 공무원 대상 현장 교육과 법령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관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하고 있다. TS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TS 제공

정용식 TS 이사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온 직원들의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유아가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기차 자체 보조금 800만원…르노코리아, 세닉 E-Tech 할인

르노코리아는 22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소진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E-Tech’ 고객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비·지

자체 보조금 총액의 평균치다.

아울러 르노코리아는 연말을 맞아 세닉 E-Tech 구매 고객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르노코리아 고객이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세닉 E-Tech 할인액은 최대 1550

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닉 E-Tech는 유럽 시장에서 호평받으며 ‘2024 유럽 올해의 차’에 오른 모델로 올해 국내에서는 999대가 한정 판매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리탕·용봉탕/방생자라판매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12kg + 한약재)

②(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60만원(10만원 할인)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97-52